

2015 / 06 / 22 (MON)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소폭 상승. 美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관련주들이 강세.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LG이노텍,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컴투스 약세.

종목별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다우기술이 8.0% 상승 마감.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1.73	0.4%	-6.8%	-674 억	935 억
KRX Semicon	1,924.91	0.3%	2.6%	-964 억	701 억
(코) 반도체	1,002.16	1.0%	25.7%	-83 억	98 억
(코) IT H/W	412.57	0.8%	18.3%	-8 억	39 억
(코) IT S/W	2,224.42	2.0%	11.3%	208 억	84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66,000	0.1%	-4.6%	-457 억	527 억
LG전자	50,700	0.4%	-14.2%	44 억	-44 억
삼성SDI	119,500	-2.4%	3.0%	-34 억	5 억
삼성테크윈	31,950	-1.7%	34.0%	1 억	-11 억
서울반도체	16,650	1.8%	-17.6%	2 억	-3 억
신도리코	65,800	-0.8%	-2.9%	-1 억	0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3,550	-1.7%	-8.8%	-405 억	119 억
이오테크닉스	94,800	2.2%	-24.3%	3 억	14 억
원익IPS	15,150	2.7%	8.6%	-18 억	65 억
리노공업	47,900	-2.6%	25.1%	-7 억	-5 억
유진테크	17,500	-0.3%	8.4%	2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9,000	0.2%	-11.8%	-30 억	-7 억
SK C&C	277,500	2.2%	30.0%	22 억	73 억
포스코 ICT	5,100	-1.2%	-3.8%	0 억	0 억
다우기술	18,200	8.0%	52.3%	0 억	41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4,000	1.6%	-11.0%	12 억	83 억
다음카카오	107,800	2.7%	-12.8%	-2 억	15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7,050	2.3%	-19.6%	66 억	-27 억
에스에프에이	49,100	0.3%	-1.1%	0 억	4 억
솔브레인	50,200	1.0%	56.1%	1 억	4 억
덕산하이메탈	8,130	1.0%	-27.1%	1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1,700	0.2%	-5.5%	44 억	-4 억
LG이노텍	109,000	3.3%	-3.1%	27 억	75 억
파트론	8,530	2.2%	-27.4%	0 억	-4 억
루멘스	4,700	0.9%	-33.3%	2 억	-1 억
일진디스플레이	9,170	1.0%	34.5%	0 억	0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7,500	2.7%	3.0%	32 억	33 억
컴투스	140,500	6.5%	-2.7%	174 억	14 억
NHN엔터테인먼트	57,700	6.3%	-34.1%	32 억	-5 억
게임빌	93,000	2.4%	-22.9%	10 억	0 억
위메이드	38,400	1.2%	1.6%	-7 억	5 억
선데이토즈	16,550	0.9%	-3.8%	0 억	4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9,100	-0.6%	450.9%	2 억	7 억
한글과컴퓨터	17,750	-0.6%	-12.1%	1 억	-5 억
코나아이	32,800	0.9%	-2.7%	0 억	-1 억
슈프리카	21,700	0.0%	-14.7%	3 억	-4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2.84	-0.4%	4.0%
MSCI Internet	161.44	0.1%	5.7%
MSCI Software	169.62	-1.1%	3.7%
MSCI Semicon	221.66	-0.1%	0.7%
MSCI IT Services	124.85	-0.5%	6.0%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57.52	0.2%	5.1%
Facebook	82.51	-0.5%	5.8%
Tencent	154.20	-0.1%	37.1%
Baidu	210.87	0.1%	-7.5%
Yahoo	40.51	-1.0%	-19.8%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6.10	-1.3%	-0.8%
Oracle	41.59	-2.7%	-7.5%
SAP	72.66	-0.8%	4.3%
EMC	27.07	-1.2%	-9.0%
Symantec	24.07	-1.6%	-6.2%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6.60	-1.0%	14.7%
Nokia	7.19	-1.1%	-8.5%
Lenovo	11.32	1.6%	11.0%
ZTE	19.70	-2.2%	17.0%
HTC	80.3	0.0%	-43.5%

Semicon	close	1D	YTD
Intel	32.07	-1.0%	-11.6%
Qualcomm	66.88	-0.7%	-10.0%
Texas Instruments	54.51	0.5%	2.0%
Micron	24.47	0.0%	-30.1%
Toshiba	427	-0.7%	-16.7%
Renesas	930	3.4%	13.0%
STMicro	7.99	-1.4%	7.0%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99	-0.7%	4.1%
HP	31.80	-0.9%	-20.8%
Accenture	97.02	-0.3%	8.6%
Fujitsu	721	1.1%	11.9%
NTT Data	5,250	0.2%	16.3%
CSC	67.71	0.0%	7.4%

Hardware	close	1D	YTD
GE	27.24	-0.5%	7.8%
Panasonic	1,709	0.5%	19.7%
SONY	3,657	-0.6%	47.9%
Whirlpool	187.57	0.2%	-3.2%
Electrolux	261.30	0.0%	14.2%
Haier	21.20	-2.3%	14.8%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010	4.1%	58.6%
KYOCERA	6,354	0.6%	14.4%
Nidec	9,134	1.3%	16.3%
TDK	9,960	1.7%	39.1%
Ibiden	2,100	0.0%	17.4%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7	1.2%	-37.7%
Japan Display	518	2.2%	40.0%
AUO	4.67	-0.4%	-8.3%
Innolux	16.45	0.0%	6.8%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컴투스	174 억	삼성전자	-457 억
LG디스플레이	66 억	SK하이닉스	-405 억
삼성전기	44 억	STS반도체	-73 억
LG전자	44 억	삼성SDI	-34 억
NHN엔터	32 억	삼성에스디에	-30 억
엔씨소프트	32 억	원익IPS	-18 억
유비쿼스	29 억	젬백스테크놀	-17 억
LG이노텍	27 억	고영	-16 억
SK C&C	22 억	유니테스트	-16 억
엠씨넥스	17 억	LS산전	-13 억
블루콤	14 억	파인테크닉스	-12 억
KH바텍	12 억	가온미디어	-9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527 억	LG전자	-44 억
SK하이닉스	119 억	STS반도체	-42 억
NAVER	83 억	LG디스플레이	-27 억
LG이노텍	75 억	이녹스	-23 억
SK C&C	73 억	LS산전	-11 억
원익IPS	65 억	LS	-11 억
다우기술	41 억	삼성테크윈	-11 억
엔씨소프트	33 억	다원시스	-10 억
OCI머티리얼	20 억	마이크로컨텍	-7 억
동진세미켄	17 억	삼성에스디에	-7 억
다음카카오	15 억	NHN엔터	-5 억
아프리카TV	15 억	한글과컴퓨터	-5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897.57	-0.2%	-9.2%
DDR3 2Gb (Spot)	1.57 \$	-1.3%	-29.0%
NAND 64Gb (Spot)	2.65 \$	0.0%	9.5%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우기술	8.0%	최근이슈

다우기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강세

다우기술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서 ICT 기업과 제2금융권의 참여를 우대한다고 전하면서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다우기술 등 IT업체와 손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는 연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음.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다우그룹은 산업자본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아니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음. 키움증권은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검토 중. 은행업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증권사는 은행고객에 접근하는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간접적으로 시중은행과 ICT 기업, 2금융사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였다며 "다만 사업모델이 비슷한 시중은행보다 보험, 증권사 등 2금융권 참여를 긍정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언급.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ICT 업계 일제히 환영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18일 발표하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던 국내 대표 ICT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냄.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다음카카오는 "우리와 같은 ICT 사업자가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음.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정도였다면 이젠 구체적인 안이 발표됐으니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음.

이 대표는 정부 안이 발표되기 전 한 핀테크 관련 학술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암시하며 "정부가 앞으로 핀테크 분야에서 규제를 풀고 새로운 룰(rule)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맞춰서 시도하려 한다"고 밝힘.

그는 "디지털이 가져다준 변화가 여러 산업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저희가 가진 이용자 기반과 모바일 노하우에 금융인프라와 보안 노하우가 합쳐진다면 획기적인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송금 서비스인뱅크월렛카카오 등 핀테크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과감한 행보를 보여옴. 카카오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뱅크월렛카카오는 최근 신규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선전 중. 특히뱅크월렛카카오는 다음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관측.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거래와 유사하지만 다음카카오만의 모바일 서비스 노하우와 전략을 결합하면 활동 반경을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분석. 핀테크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계획 아래 시장 상황을 주시해온 KT는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번 조치로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에 대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플랫폼 제공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SK C&C도 이번 조치에 환영을 표명. SK C&C는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법과 제도에 막혀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늦어진 측면이 있으나 이제라도 규제가 풀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 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전문은행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힘.

SK C&C는 자사가 보유한 시중 은행 IT 인프라 구축 경험을 활용해 관련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4~5곳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짐.

국내 대표적 IC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한다면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에 오랜 시간 쌓아온 이용자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경험이 합쳐져 기존 은행이 제공했던 것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다만 오프라인 지점망이 없어 업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업체가 얼마나 안전한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

한편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네이버 관계자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출시 예정인 네이버페이 역시 검색에서 결제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일 뿐 산업적으로 핀테크 분야에 진출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진 않는다"고 언급.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컴투스	6.5%	최근이슈

News & Issue

컴투스 '서머너즈워', 중남미 시장에서 인기몰이

컴투스의 글로벌 RPG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중남미 지역 게임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음. 지난 12일 글로벌 서비스 1주년을 맞은 서머너즈 워는 25개국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에 랭크. 애플 앱스토어 93개국, 구글플레이 85개국에서 매출 순위 TOP 10에 진입.

이 중 최근 신흥 게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음. 남미 1위 게임 시장인 브라질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 중남미 14개국의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TOP 10에 진입.

지난 6월 16일 기준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부문에서 브라질 3위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3위, 코스타리카 4위, 칠레 4위, 우루과이 6위, 콜롬비아 6위를 기록.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순위에서도 브라질 8위, 칠레 8위, 페루 15위 등 여전히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컴투스 관계자는 "브라질 전체 인구의 약 42%가 모바일 게임 이용자라고 알려졌듯이 중남미 게임 시장은 현재보다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흥 게임 시장"이라며 "기존 대형 시장을 넘어 다양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현지 이용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모바일 게임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Tencent	6.5%	최근이슈

News & Issue

중국 최대 메신저 결제 서비스 '위챗페이' 국내 오프라인 서비스 개시

케이알파트너스가 하나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을 기반으로 한 '위챗페이(Wechat payment)' 서비스를 오프라인 가맹점에 국내 최초로 제공한다. 22일 커핀그루나루를 시작으로, 이어 신라면세점, 이니스프리에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

이번 서비스 출시에 따라,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6억 명의 회원들이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쇼핑은 물론 결제 서비스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됨.

위챗은 중국 굴지의 IT기업인 '텐센트(Tencent)'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 내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 아시아 지역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텐센트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기반으로, 자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텐페이(Tenpay)'와 연동시켜 지난 2013년 '위챗페이' 서비스를 출시.

국내 위챗페이 도입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풍속도가 기존과는 판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위챗페이는 위챗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서도 지인에게 선물할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며 구매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위챗에 탑재돼 있는 계좌이체·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이용, 자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필요할 때 송금 받을 수도 있고, 위챗에서 생성한 바코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케이알파트너스는 위챗페이 거래 데이터의 승인, 중개 업무와 가맹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며, 하나카드와의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산할 예정.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원익IPS	2.7%	최근이슈

News & Issue

원익IPS, 3분기 실적 대폭 성장 기대

원익IPS가 올해 3분기 실적이 대폭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강세. 주요 고객사의 신규라인 투자 효과와 미세공정 전환 가속에 따른 반도체 장비 수주 확대, 디스플레이향 장비 공급 등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한편 원익IPS는 지난 18일 중국 삼성반도체로부터 반도체용 제조장비 692.5억원을 수주했다고 공시하며 3분기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신규투자는 금번 중국 3D NAND를 시작으로 System LSI까지 이어질 전망.

내년 평택 신규라인 증설로 장비업체의 관련장비 신규 수주는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전망. 다만 2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임. 일시적인 반도체 장비 공급 둔화가 주요인.

원익IPS는 2분기 이후 강한 수주모멘텀을 통해 내년까지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삼성전자 DRAM, NAND, System LSI향 CVD장비 모두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어 장비 수주가 지속될 전망. 2분기 이후 반도체 소자 업체들의 투자 확대와 디스플레이업체들의 투자 가속화 등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2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2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